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배포일자

2025.3.28.

즉시 배포

담당자

손화정 보좌관
010-7113-6565

이언주 의원 “조선업 기술 국산화, 소부장 생태계, 내국인 숙련 노동자 상생 민주당이 챙길 것”

-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거제 한화오션 이어 삼성중공업 방문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첨단조선업 지원법」에 업계 건의사항 선제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해 거제 산업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언주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산업현장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 그리고 지난 25일 거제 한화오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잇따른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주당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허성무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협력사 등 업계에서는 △국내 철강사들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로 강재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원가부담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조선기계 등

복수 산업군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 또는 최소화 필요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를 기회발전 특구 및 친환경 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 △미군 군함 건조 및 MRO 사업 수행 시 한국산 적용 및 국산화 인센티브 등 공정거래 정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업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조선해양 기자재 협력사 지원책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인데 해상 패권이 중요한 시기에 원가경쟁력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선업 뿐만이 아니라 철강·화학 등 여러 부문의 산업 전환기에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과제”라며 “국내 조선업체가 LNG선이나 특수선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기자재 및 기술의 국산화 △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 형성 △내국인 숙련 노동자와의 상생 등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25일 국내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첨단 조선기자재 국산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어(제5조 제2항) 기자재 협력사의 건의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밖에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 노동자를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허성무·이개호·황희·정성호·황명선·소병훈·민홍철·황정아·김현정·안도걸·권향엽·김정호·강준현·이상식·윤준병·김동아·정진욱·이재관 국회의원이 이언주 의원과 함께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끝.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 이언주, 허성무, 김정호 국회의원이 28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 이언주, 허성무, 김정호 국회의원이 28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